

“나의 노래가, 누군가의 **희망이 빛나는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캐치 프레이즈]

[미래를 연주할 희망의 리본]

[외관]



그녀의 외관은 바뀌었다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 어쩌면 바뀌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중등부 시절 아래까지 닿았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프 업으로 트윈테일이 바뀌었다. 중등부 시절에는 머리를 묶고 있어 알 수 없었지만,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던 탓인지, 본인이 원래 곱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머리 끝에 항상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머리를 묶었던 리본과 리본의 색은 계속해서 유지중. 모자를 썼던 중등부때와는 다르게 모자를 쓰지 않는 고등부이기에 가능한 머리스타일이며, 어쩌면 자신이 조금은 달라졌음을 내보이기 위한 그녀로써는 큰, 타인이 보기엔 작은 변화일 것이다. 중등부 때 처럼 정석대로 교복을 차려

입었으며, 때때로 가디건을 걸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일단 표준 의상으로는 재킷을 걸치고 있다.  
하얀색의 사이하이 삭스를 고수하고 있으며, 신발은 깃이 달린 로퍼에서 평범한 로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의 현재 고민 중 하나인 키가 150대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굽이 조금 있다.

### 이름

카가야키 미라이

輝希 みらい

Kagayaki Mirai

### 학년

2학년(18세)

### 키/몸무게

159 / 미용

### 타입

큐트

### 선호 브랜드



**소속 조**

소나타

**이미지 컬러**

#da6afc

Soft Magenta



**성격**

**확고한 / 당당한 / 기죽지 않아**

중등부 시절의 그녀는 의기소침하고 소심한 느낌이 많아, 1:1로 하는 대화를 비롯해 사람과 하는 대화 자체를 힘들어 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마냥, 당당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한다. 중등부 시절에는 그녀 속에만 있던 그 확고한 성격이,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과 만나 당당하게 성장한 것이 아닐까. 다만 어른과 대화하거나 당황했을 때에 말끝을 흐리는 버릇은 여전히 남아있다.

“헤헤,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노력가 / 열심히 / 포기하지 않아**

중등부 때부터 항상 이어져 온 성격 중 하나이며, 소심한 그 성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성격 덕분일지도 모른다.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성격이 조금은 더 나아진 것이리라. 노력이 결실을 맺을거야 라는 이 한 마디로 인해 그녀는 포기를 모르는 성격도 갖게 된 것이다.

“응! 오늘 하루도 노력하고, 힘내세요!”

**배려심 / 받은 것은 배로 만들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보답할 수 있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 도움을 배로 만들어 돌려주는게 그녀의 방식이다.  
물론, 배려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베풀진 않는다.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괴롭힘이 배가 되어…… 이 이상은 생략한다.

"받은 것은 몇 배가 되든 돌려줘야하는 법이에요."

### 령이 / 길치 / 산만해?

그래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찌보면 사회에 나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평지에서 다리를 삐끗하고, 물건을 까먹는다...아니, 더 심각해졌다. 다리를 삐끗하는 건 그렇다 쳐도, 물건을 까먹는 것을 고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써도, 그 체크리스트를 잃어버리고, 지도를 들고 있다가도 어느샌가 지도를 잃어버려 미아가 되어있다. 어느 날은 지도를 보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가도 예쁜 나비네요~라며 나비를 따라가지를 앓나... 덜렁이 같은 면에 있어서는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듯하다.

"어라? 예쁜 나비를 쫓아왔는데... 길을 잃은걸까요?"

### **빈틈이 있어 / 어쩌면 재밌는 아이**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던지, 잘만 걷다가도 멈춰선다던지 아무래도 빈틈이 많은 아이다. 그 빈틈을 노려 장난을 걸면... 반응이 재밌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놀리는 것을 재미로 삼기도 한다.  
간지럼도 잘 타는 바람에 뒤에서 나타나 간지럼을 태우면 놀라는 반응에 간지러워서 나오는 반응까지 합해지기 때문에 더 재밌는 반응을 볼 수 있다고.

### **특징**

### **생일**

3/17

탄생화 : 콩꽃(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탄생석 : 아쿠아마린

### **좋아하는 것**

아이돌의 노래, 리본, 반짝이는 것, 단맛의 먹거리, 파르페!

## 싫어하는 것

쓴맛의 먹거리, 노력을 부정하는 것, 반짝이지 못하는 것

## 특기

악기 연주(바이올린, 플룻 등), 과자나 빵 만들기 등 주로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던지기(!?)

## 🎀브랜드, 메이플 리본!

그녀는 4가지의 타입 중 자신의 타입으로 큐트를 선택하였다. 귀엽고 예뻐장한 이미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가! 동화책에 나올 법한 공주님이 입을 법한 옷, 요정들이 입을 법한 옷, 귀엽고 감쪽하고...! 아무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가득 담긴 브랜드들이 많았다. 때때로 공주님을 동경하곤 했던 그녀가 다른 브랜드가 아닌 메이플 리본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항상 악세사리처럼 매고 다니는 머리의 붉은 리본이, 이젠 그녀에게선 떼어놓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 앞에 여러가지의 리본이 달린 코디가, 브랜드가 등장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메이플 리본을 자신의 브랜드로 선택하였다.

## 🎀말투

1인칭은 나(私), 2인칭은 보통 성과 이름에 양(さん), 선배라면 선배(先輩)를 항상 붙이며, 모든 말이 존댓말이다. 이야기할 때의 톤 자체는 높지만 나긋나긋한 목소리.

## 🎀개그/장난

이름이 이름인 만큼 그녀의 가족은 자주 장난을 쳤다. 그녀가 토라져있으면 어디선가 마이크를 들고와서는 노래 가사에 미래(みらい)가 들어가는 부분만을 고집해서 부르곤 했다. 그만큼 말장난이나, 이름과 관련해서 장난을 걸면 화를 내곤 하지만, 그녀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걸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보고 재미가 들러 더욱 놀리곤 한다.

## 🎀특기 중 하나, 던지기?

물론 나쁜 습관인 것은 아니며, 더욱이 초면인 사람이나 사이가 좋은 사람한테 갑자기 뭔가를 던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말장난을 걸거나, 말장난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로 손수건을 던지거나 종이를 접어 비행기를 날린다던지 해서 말을 막는 식이다. 앞에서 말했듯 그녀의 가족이 이름으로 장난을 많이 쳤기에 그때마다 베개나 책을 던지면서 얻게 된 특기다.

## 🎀키에 대해

그녀의 중등부 때부터의 고민이자 고집이었던 키. 다들 왜 그렇게 키에 대해 고민하나 싶었겠지만, 사실 그녀의 주위 사람들 중에는 거의 키가 큰 사람들 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끼어있으면 높은 산들 사이에 낀 언덕같은 느낌이라고. 또한 키가 작은 탓인지 가족들끼리 만나면 어른스럽다던지의 이야기보다도 귀엽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녀의 형제자매는 그녀보다 키가 커서 항상 키로 놀린다고 한다.